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참간 30주년 since 1989
#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898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음력 10월 10일)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 제주도 예산집행률 높이기 '발등에 불'

## 10월말 기준 68.9%… 연말까지는 89.1% 집행될듯
## 대규모 사업 부진…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 대표적
## 도 "경제활성화 위해 90% 이상 목표로 정책 추진"

지방재정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예산집행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재정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대규모 사업 집행 부진 등 이월예상사업이 산적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재정집행실적(도+행정시+공기업)은 68.94%로 전년동기 70.04% 대비 1.1%p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 집행률은 69.44%로,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청 실·국과 기관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시에 비해 도 본청의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집행 대상액 규모가 큰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비 집행이 가장 중요한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전체 집행 대상액의 34.8%를 차지하는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의 경우 집행률은 각각 63.3%, 56%에 그치고 있다.

특히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2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환경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중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17.3%,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6.2%, 제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28.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 27.9%,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7.9%, 화순항 건설 30% 등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 행정 내부 경비 집행과 국고보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집행 부진도 문제다.

여기에 전년과 달리 예비비(835억원)가 집행대상에 포함되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는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1조4362억원에 대한 추가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 부서 집행계획상 연말까지 89.1% 집행이 전망되고 있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집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설비, 민자 사업비 집행률 제고(자치단체 신속집행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적극 활용) ▷집행부진·불가사업 정리추경시 조정 ▷이월 심사 강화 통한 이월 사업비 최소화 ▷재정집행 상황 관리 강화 ▷재정집행에 따른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민간 경제의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기재부는 지방재정 집행을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 국비 지자체 교부액 결정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화장품원료산업화협의체 제주서 출범

### 산학연관 60여 회원사 참여
### 제주TP가 협의체 간사 맡아
### 표준화·신뢰확보 주력키로

우리나라 화장품원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국 단위 협의체가 제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제주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TP)는 청정자원 화장품원료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과 천연화장품 원료 및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원료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장품원료산업화 협의체 간사기관은 제주TP가 맡았다.

화장품원료산업화협의체는 전국의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소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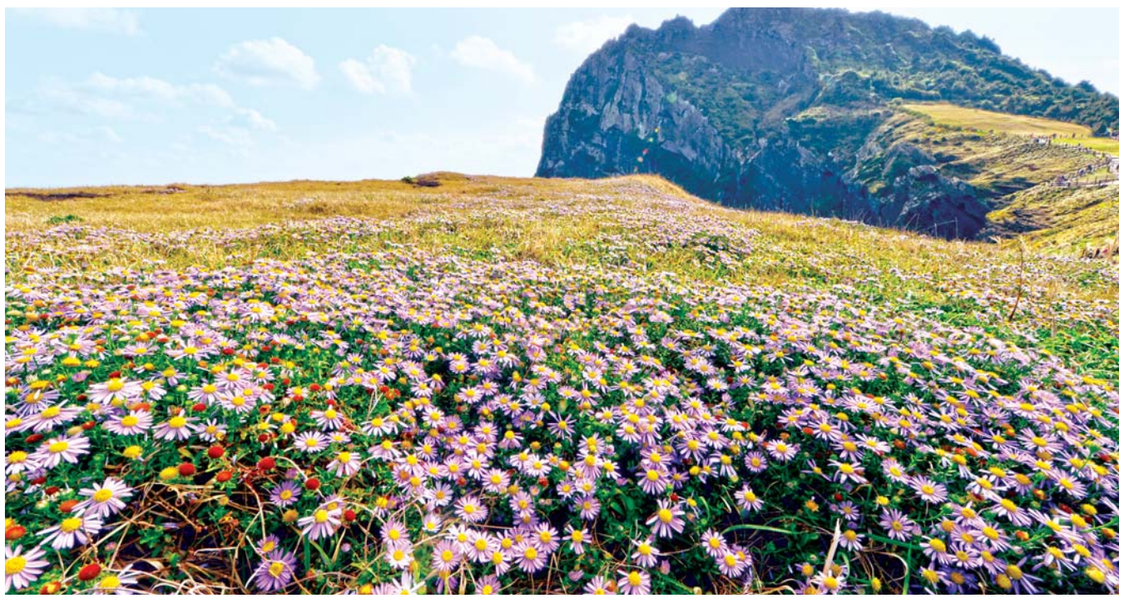
협의체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제주산 원료 제품개발을 위한 소재 정보와 제품화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제주 화장품원료인증 컨설팅 지원 ▷협의체 회원사 현장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기술 및 정보교류 ▷화장품원료 생산 지원 등 화장품원료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의체는 지난 4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코스닥상장사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대봉엘에스(주)의 박진오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회원사들은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TP는 화장품원료산업화 협의체를 통해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체적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TP는 그동안 화장품 생산연구와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제주의 청정화장품 산업을 제주의 새로운 거점경제로 육성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2018년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유치해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소재의 원료화와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험생산 장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늦가을 정취 자아내는 쑥부쟁이** 5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 갯쑥부쟁이가 활짝 피어나 제주의 가을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갯쑥부쟁이는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두해살이풀로, 주로 바닷가의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희만기자

##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 개최

### 11~12일 라마다프라자호텔
###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포럼이 오는 11~12일 이틀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다.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원회와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카지노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균형적인 정책 방안'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분야 산·관·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카지노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발표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취업상담부스, 현장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포럼 첫날 스토우 쇼메이커 라스베가스주립대학교 호텔경영대 학장이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감독기구 관점에서의 균형적인 카지노 정책 방안'이라는 세션 1이 펼쳐진다.

세션 2는 '카지노업계 관점에서의 균형적인 카지노 정책 방안'을 주제로 이어진다. 김종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장이 발표에 나서며, 제주대학교 홍성화 교수(제주관광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는다.

포럼 둘째날인 12일은 '제주 카지노 산업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세션 3이 펼쳐진다. 김상혁 카지노업감동위원회 및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조상윤기자

## "멸종위기 한라산 구상나무를 살려라"

### 6~8일 구상나무 보전 전략 마련 국제심포지엄
### 국내·외 전문가 등 연구결과 공유·현장도 답사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수종인 한라산 구상나무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길림)는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주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6일 오후 1시부터 국내외 구상나무(전나무류)에 대한 총 15건의 주제발표 등 연구결과 공유와 논의가 이틀 동안 진행되며, 8일은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첫날(6일)은 제주도, 일본, 대만의 각 나라별 구상나무(전나무류)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 3건 및 '구상나무의 분포 및 특성'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 발표 3건이 진행되고 토의가 이뤄진다.

7일은 폴란드, 러시아의 전나무류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구상나무의 고사 및 쇠퇴 원인, 구상나무의 보전방안을 주제로 한 7건의 연구결과 발표와 종합토의가 있게 된다.

마지막날인 8일은 한라산 구상나무 자생지(영실~어리목) 답사를 통해 고사현황 등 실태를 알리고, 구상나무 보전방안에 대한 현장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수종이다.

최근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의 구상나무림은 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사목이 발생되면서 보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상나무와 같은 전나무류의 생장쇠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는 상황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기획 7면… 2019 한라에서 백두까지 (8)압록강과 단둥을 가다